

이웃교회 주일 낮 공동예배

시간 / 오전 11시
2014. 6. 29.

예배의 부름 /

(인도자) 주 앞에 잠잠히, 다만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교우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위로와 희망이 도소서.

찬송 / 20장

공동체 고백 / 연약한 자를 함께 모이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함에도
우리는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누구 위에 군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 본연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약한 것 가운데 강함 도시는 주를 의지하니 힘주소서.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참회의 기도 /

(인도자) 주님 가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길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우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도자) 사람은 경험한 것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바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양 생각하여 살았습니다.

(교우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시오.

(인도자) 주여, 주께서 사셨던 대로 우리 역시 주위를 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여유가 있게 하소서. 아멘.

위로의 기도/

(인도자) 주여 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시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헤아리는 자비의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저들이 순간도 어둠 속에 부끄러운 이들을 위로하시며 빛으로 인도하시어
애달픈 이들의 마음에 주여 함께 하옵소서. 힘이 도웁소서.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우들) 아멘.

성서교독/ ㄹ (시편 17편)

찬송/ 379장

성서낭독/ 롬 6:1 - 13

설교/ 죽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소서.

찬송/ 390장

헌금과 기도/ 4장 1절

주기도/

교회이야기/

파송찬양/ 평화의 기도

축복기도/

생각해봄 : 죽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힘든 일 없이 좋게 좋게 인생을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누구든 그런 삶을 싶어하겠습니까만, 우리에게 인생이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생은 사실 실패와 부끄러움 그리고 좌절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와 부끄러움 그리고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갑니다. 흔히들 역사 속 위인들이 그렇듯, 우리는 수많은 시련들을 통해 성장하고 깨닫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시련을 가져도 그것이 자신의 밑거름이라는 생각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탄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복으로 착각하여 살아가고 있지요. 또한, 마치 그런 자본주의적인 성공을 복으로 착각하다보니, 거룩의 개념 역시도 깨끗하고 순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한국교회의 모습이 현실과 유리되고 괴리가 있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 목사의 백성, 불국사, 국민에게 발언 역시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마치 한국사회나 한국교회의 모습은 '현실에 없는 한국드라마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은혜로 인하여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묵상합니다.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켰으며,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영광과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예수께서는 헛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는 은혜와 영광 역시 값싼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의 삶과 죽음이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의 범주가 아닌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삶은 그것과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과 다른 바 없는 형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인생과 동일합니다. 성공과 영광이 아닌, 처절한 실패와 좌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배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 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6:1-4 공동번역)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과 죽음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분문을 크게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아님, 더 깊은 좌절 속에 삶과 죽음을 맞이했고, 비로소 부활하셨음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이 분문은 큰 각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복과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좌절과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 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6:5-8 공동번역)

우리는 그 처절한 삶과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으로 '부활 - 살아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처절함이 없는 영광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욕망이지 거룩함도 은혜도 복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국 죽어 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기어 약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감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6:12-13 공동번역)

여러분의 삶의 처절함과 실패 즉, 죽음이 여러분을 약의 도구가 아닌, 정의의 도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기초를 닦는 이 시대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죽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십시오.

<아빠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

제 1) 과 : 아릅답지만 아릅답지 않은

첫째 시간

고려가요를 이야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작품이 아아도 <가시리>와 <청산별곡>이 아닐까 한다. <가시리>는 간단하고 짧은 데 비해서 <청산별곡>은 일단 그 내용이 길고 해석에 논란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노래라고 할 수 있지. 아아도 '얄리얄리얄라성얄라리얄라'라고 주문처럼 반복되는 특이한 후렴구 덕분에 아아도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오늘부터 이 <청산별곡>을 공부해볼까 한다. 일단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어리 살어리갓다 청산(靑山)에 살어리갓다
널유강 다래강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갓다
얏리얏리 얏강성 얏라리 얏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얏리얏리 얏라성 얏라리 얏라

가던 새 가던 새 분다 물 아래 가던 새 분다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분다
얏리얏리 얏라성 얏라리 얏라

이강공 며강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숯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또 엇디 호리라
얏리얏리 얏라성 얏라리 얏라

어디라 더디던 들코 누리라 아치던 들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아자셔 우니노라
얏리얏리 얏라성 얏라리 얏라

살어리 살어리갓다 바라래 살어리갓다
나아자기 구조개강 먹고 바라래 살어리갓다
얏리얏리 얏라성 얏라리 얏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사미 짐대예 몰아서 해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얏리얏리 얏라성 얏라리 얏라

가다니 배브른 도기 설진 강투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매와 잡사와니 내 엇디 하리잇고
얏리얏리 얏라성 얏라리 얏라

좀 어려울 것 같지? 그래도 결국 사람이 지은 글이니 이해하는데 큰 문
제는 없을 거다.

- "아빠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는 고전문학을 전공하신 한기호님께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글 모음으로 앞으로 계속 연재될 계획입니다.

< 목사 이중적에 관해 >

신학잡지 '목회와 신학'에서 목사 이중적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80%가 미자립 혹은 자립했으나 넉넉지 못한 교회들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과거 한강처검 목회만하고 사모들이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목회사역 외에 일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목회와 신학'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목회자들 '이중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골자로 했습니다. 결과는 과반이상의 이중적 찬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중적?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때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o. 잘못된 노동에 대한 인식.

대부분 '이중적'에 대한 찬성을 보낸 이들이 가지는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바로 노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목회를 위한 도구로서 '일'을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편해야되고, 시간적 효율이 높아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직업'이란 '돈'을 버는 수단이지 아니라, '관계'와 자신의 '꿈과 계획'을 위한 것이니 말이죠.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죽을 만큼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위한 수단,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니 말 다했죠.

별개의 목회자들은 '개혁'의 수단으로 이중적 혹은 노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하는 이중적의 내용 역시 '카페'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요. 결국 목회를 위한 '공간'과 목회자의 '여유'를 생각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교(대학, 신대원)에서부터 이러한 이중적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방법론'이지요. 이미 이런 방법론은 사실 너무도 많거든요. 신학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면.. 이미 커리큘럼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사실 그런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커리큘럼을 배우기 이전에, 노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전국 일곱개 신학대학교에서는 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경제이론, 그리고 생명과 노동에 대해서 매 학기마다 1-2과목이 개설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전국학교에서 수강한 이들과 이들을 가르친 에큐메니칼전영의 교수님들이 모임을 가지기도 하구요. 노동이 얼마나 가치있고, 이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중적' 즉, 목회하면서 개혁이나 생계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 현재의 교회론으로 과연 이중적이 가능한가?

그네들이 말하는 '시간'과 '여유' 그리고 '육체적 노동이 적은' 일을 하게 된다면.. 과연 현재의 교회 목회가 가능한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예배 그리고 여러 섬방들과 회의, 후보작업 등. 이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당신이 하는 '이중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노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현재의 목회, 교회, 교회론이 수정되지 않고서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이중적을 찬성하는 목회자 대다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지요.

보통들. 교회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많은 예배와 많은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공동체성이란 것이 그런 것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커뮤니티활동을 하면서 '쑹쑹'이란 복네임의 목회자란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많은 쪽지와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쪽지와 메일은 그들의 삶에서 비롯된 많은 고민들이었지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쪽지와 메일을 보낼 때 꼭 적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는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공동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수많은 예배와 일방적인 설교, 그리고 수많은 봉사를 함에도, 사소한 질문 하나도 못하는 그것이 공동체랄 수 있는지요? 유교적 의식 좋습니다. 권위적일 수 있다? 좋습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란 곳은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믿습니다. 또한 다들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힘들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며,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노동을 하고, 가정의 생계를 걱정하기도 하며, 좀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도 좋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유지가 되어야 생계를 이룰 수 있는 점에서 결국 이러한 현재의 모습만이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웃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슈퍼를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이웃교회는 모입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신에게 솔직히 팟캐스트 녹음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모여서 강단이 아닌 빙 둘러앉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목회자 역시도 일에 지쳐서 실수도 하는 설교를 하고, 예배 후에는 허심탄회하게 설교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거나 사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 사회이슈나 교회이슈, 교회역사에 대한 공부를 녹음을 이유로 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몇시간 밖에 안되는 시간이지만, 저는 이런 것이

더 교회공동체성을 길적으로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여 목회를 하니 일반적인 교회와 다른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면 좋죠. 하지만 많으면 불편합니다. 두번째는 헌금이 얼마가 모이든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헌금은 점심식사비와, 구제를 위한 모은 것밖에 없습니다(구제에 대한 부분은 향후 토의예정). 세번째는 목회자가 아니라 나 역시 성도란 생각에 자유롭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중직을 생각하시거나 찬성하시는 목회자분들. 너무 현재 교회론에 얽히지 마세요. 교회공동체성은 많은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생활 전선에 처절하게 뛰어들고 지켜보기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그렇다면, 정당한 노동을 하여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넵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슈퍼를 합니다. 오픈은 오전7시, 클로징은 밤 12시입니다. 집에 가서 누우면 새벽 1시, 기상은 6시입니다. 목회자일때와 기상, 취침시간은 같지요. 다만, 하루 일과가 힘듭니다. 문을 열고 9시까지 도매에서 쌀 물건들을 체크합니다. 도매점, 과일, 야채시장을 돌면서 장을 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12시까지 장사를 합니다. 쉬는 날은 없어요. 토요일이면 더 힘듭니다. 평일동안 시간이 날때마다 준비한 설교와 주보를 완벽히 준비합니다. 평균 새벽 2시 쯤 넘어서 잡니다. 주일이 되면 문을 열고 아르바이트가 올때까지 장사를 하다가, 1시간 넘게 오전을 하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때는 2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슈퍼로 다시 가지요. 그렇게 매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팟캐스트 업데이트를 약속했기에 주말늦게는 그것 편견도 합니다. 쉬없는 나날이라 너무 피곤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 했듯 시간은 만들면 납니다. 기존 목회의 완벽함을 생각하면, 우리 목회자

외 일반 성도들의 일반적 삶과 노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삶과 노동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덜 자고 더 노력해서 목회를 할 수 밖에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대안점은 앞으로 업데이트될 '목사이중적 2부'를 들으시면 될듯합니다.

이중적이란 말은 사실 특린 말입니다. 인간은 그저 살아가거든요. 목회를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분들이 개혁이나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이중'적이 된다는건 웃기지 않는가요? 제가 뉴퍼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란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삶 전체가 바로 목회이고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중적이란 말은 특린 것이지요. 대한민국에서 한 인간이 살아가는 것 아니, 그저 지구에서 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 분들, 그 불확실성으로 투신하십시오. 그게 정말 목회자로서의 삶이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교회 이야기]

1. 부활절 여섯 번 째 주일입니다.
2. 예배에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3. 세월호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4. 팟캐스트 '신어게솔직히'가 앞으로 이웃교회에서 교회가족들과 함께 녹음됩니다. 월요일 혹은 화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후원계좌 : 이웃교회 국민은행 443301-04-086124

블로그 : goodsaram.tistory.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oodsaram12>

이메일 : goodsaram12@hanmail.net

이웃교회 위치

서울 송파구 삼전동 31-번지 402호

(찾아오시는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 글을 참조바랍니다.

: <http://goodsaram.tistory.com/261>)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립니다(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위의 블로그, 페이스북, 혹은 이메일을 통해 미리 연락드리면 맛있는 예찬을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